



## 복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실로스 Blessed Francis Seelos (1819-1867)

(축일 10월 4일)

Fussen(독일, Bavaria)에서 Frances Schwarzenbach Seelos와 Mang Seelos의 12남매 중 하나로 태어났다. 그리고 같은 날 그의 아버지가 직물상인으로 졸군 살고 있었고, 1830년부터는 교회지기로서 지냈던 Saint Mang의 본당에서 유아세례를 받았다.

실로스는 1831년 초등학교에 다닐 때, 사제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Ausburg에 있는 성 스테파노 재단 설립의 중등학교에 입학했다. 그후 1839년에 졸업장을 받고 뮌헨에 있는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고, 1842년 9월 19일 신학교에 입학, 신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신학생 시절에 실로스는 구속주회 선교사들과 친분을 쌓아 갔고, 그러는 사이에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구속주회의 영성과 사도적 활동들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미국에서 이주민들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속주회 선교사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실로스는 구속주회 선교사들의 타오르는 사도적 열정에 감명되었고, 미국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사목을 하던 구속주회 선교사들에게서 독일계 이주민들을 위한 영적인 보살핌이 부족하다는 "시온"이라는 가톨릭 신문 기사에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실로스는 미국에서 선교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허락을 구속주회에 요청하기로 하고 입회를 결정한다.

실로스는 1842년 11월 22일 입회허락을 받은 후, 이듬해 3월 17일에 프랑스의 Le Harve항구를 떠나, 1843년 4월 20일 뉴욕에 도착했다. 그리고 신학 공부와 수련을 마친 후, 1844년 12월 22일 볼티모어에 있는 성 야고보 구속주회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서품 후 몇 달이 채 안되어 그는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의 성 필로메나 성당에 부임하여 그곳에서 9년을 지낸다. 첫 6년은 그곳 구속주회 장상인 성 존 노이먼(St. John Neumann)과 함께 그의 보좌 역할을 하며 보냈고, 남은 3년은 같은 공동체의 장상으로 지낸다. 이 시기에 그는 구속주회 공동체의 수련장으로 지목되었다. 성 노이먼과 함께 사목하던 때 강론에서 노이먼과의 관계에 대해 "그는(노이먼 성인을 지칭함) 나를 능동적인 삶으로 인도했고, 영적 지도자와 고백 신부로서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신앙적이고 사목적인 요구를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있어 그의 천부적인 적응성과 친절함은 심지어 이웃 마을에까지 그를 전문적인 고해 신부요 영적 지도자로 알려지게 했다. 볼티모어와 피츠버그에서 실로스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자비로움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고해성사를 줄 수 있었다. 그의 고백성사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었다.

"나는 영어와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로 흑인들과 백인들의 고해를 들었습니다."

### 구속주회 소속 Redemptorist Order

[www.cssrkr.com](http://www.cssrkr.com) (한글)  
[www.seelos.org](http://www.seelos.org) (영문)



성마리아 성당 안